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경선 ARS 오류 납득할 수 없어”

김영록, 권리당원 중복 투표·정보 비공개 등 개혁 촉구 “공정·투명성 훼손…당 지도부·선관위 책임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나섰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주당의 ‘깜깜이 경선’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지사는 2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성공적 출범이라는 대의를 위해 경선 결과를 견히 받아들이지만, 납득할 수 없는 깜깜이 경선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그는 “결선 투표 과정에서 전남이라고 답변할 시 발생한 ARS 응답 중단 현상,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 안내 부실, 권리당원 중복투표, 경선 전반에 대한 정보 비공개 등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2일 결선 투표 첫째 날 ARS 투표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전남이라고 입력했을 때 전화가 끊기는 사

례가 무려 2308건이나 발생했다”며 “어른 조사업체의 설계 부주의라는 중대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1회의 재발신을 통해 경선을 진행한 중앙당의 조치는 5~7%에 불과한 응답률을 감안하면, 2000여명이 넘는 전남지역 유권자의 의사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치유 불가능한 근본적 오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끊어진 2308건은 응답을 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전화가 끊긴 상황”이라며 “이후 재발신은 응답 비율이 대폭 떨어지는 상황이라 최종 경선 결과를 바꾸고 도남을 중차대한 사안으로 결과가 동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결선투표를 위해 31만여 권리

당원에게 투표 안내 문자를 보냈지만 받지 못한 이들이 다수 발생했다”며 “예비경선과 본경선에 투표했던 사람이 결선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례도 발생하는 등 투표의 배제뿐만 아니라 당원 주권주의의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중앙당이 책임 있는 설명을 분명하게 요구했다”며 “하지만 민주적 절차가 배제된 경선,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경선에 대해 한 마디의 설명이나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지사는 “경선과 관련해 중앙당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 사법적 판

단을 구해야 한다는 시민의 수많은 요청에도 민주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성공을 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적 대응은 자제하기로 했다”며 “침묵은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며, 설명하지 않는 권력은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정치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투표권의 제한, 시민당원주권의 침해, 최종경선 결과의 왜곡은 결국 집권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는 중앙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나섰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주당의 ‘깜깜이 경선’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전달 받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주최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전달식’에서 오세희 위원장(왼쪽 세 번째),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왼쪽 두 번째), 한정에 정책위의장(오른쪽 끝)이 정책을 전달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병태 예비후보, ‘스마트경로당’ 확대 공약 마을경로당 3곳 방문…건의사항 경청

더불어민주당 윤병태 나주시장 후보(사진)는 최근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와 송월동 흥동 경로당 등 3곳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윤 후보가 찾은 송월동 흥동경로당은 지난해 스마트경로당으로 지정된 곳으로 TV 화면을 통해 전문 강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노래교실과 요가, 체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로당과 전문 강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건강·여가 프로그램, 화상 교육, 비대면 소통 서비스 등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복지 시스템이다.

나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읍면동별 1개소씩 총 20개소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윤 후보는 빛가람동 민주당 도·시의원 후보들과 빛가람동 센터레이크 경로당



과 LH 1단지 경로당을 찾아 건의사항을 세심히 경청했다. 윤 후보는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의 하루가 머무는 생활 공간이자 가장 가까운 복지 공간”이라며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나주시는 입식 테이블 보급과 의자 지원, 경로당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 김치냉장고 신규 보급, 주·부식비 지원 등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민선 9기 공약으로 스마트경로당 확대와 함께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 전자제품 지원 등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

민주당 전남도당 광역 비례대표 순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경선(권리당원 100%) 결과 비례대표 1번, 3번, 7번을 배정받는 여성 분야에서 1위 박은정, 2위 이은정, 3위 정다현 후보 순으로 결정됐다. 2번, 6번을 배정받는 청년 분야는 박진한, 김동권 후보 순서다.

4번을 배정받는 사회적 약자 분야는 박정선 후보가 선출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민형배, 국회의원직 사퇴

오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본격 선거전 돌입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사진)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레이아웃을 펼친다.

민 후보는 29일 당내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일괄 사퇴했다.

사퇴서를 제출한 현역 의원은 민 후보(광주 광산을)를 비롯해 박찬대(인

전 연수갑), 추미애(경기 하남갑), 전재수(부산 북갑), 김상욱(울산 남갑),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위성근(서귀포) 등 8명이다.

국회의장이 제출한 사임계를 수리하면 사퇴 절차가 마무리된다.

민 후보는 이어 30일 오전 광주시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



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민 후보의 사퇴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용빈 전 국회의원, 윤난실 전 청와대 비서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백승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산하 기자 solee235@

구분기 촛불행동 전 대표, 광주 광산을 보선 출마

구분기 촛불행동 전 공동대표(사진)가 29일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구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내란청산 선거”라며 “촛불이 직접 국회로 들어가 지지부진한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 이유에 대해 “국회가 내란 청산 임무를 맡기지 않고 있다”며 “촛불이 국회로 들어가 직접 행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국회 입성 시 추진 과제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제시했다. 구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는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은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 동부권 재도약 시대 열겠다”

정의당 강은미 통합시장 후보, 핵심 공약 발표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가 전남 동부권을 찾아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일당독점을 깨는 정치적 대전환을 호소했다.

강은미 후보는 29일 여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로운 대전환, 동부권 재도약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와 함께 동부권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강 후보는 산업 전환의 파고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의 철강 산업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특구’ 국가지정을 약속했다. 산업 위기에 일자리를 잃고 지역을 떠나는 이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통해 일하는 시민들이 산업 전환의 물결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적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에게 기금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강 후보는 동부권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여수·고흥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및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 고품우주센터의 재생에너지 기반 우주 산업단지 전환 및 우주 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을 약속했다.

보성·순천·고흥·여수를 아우르는 여수만을 ‘전남광주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생태 보전 계획도 덧붙였다.

강은미 후보는 “영남에서 국민의힘 일당독점에 맞서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처럼 ‘호남의 김부겸’이 되겠다”며 “경쟁 없는 권력은 책임있게 일하지 않는다.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새로운 호남정치를 만들어 모든 시민의 삶이 특별해지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민주 북구 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 기호 결정

이숙희·안평환·김건안 순서…“경선 피로도 최소화”

6·3 지방선거 북구 제1선거구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김건안·안평환·이숙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은 29일 “순위 투표 없이 본선 기호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선에서 이숙희 후보가 가반, 안평환 후보가 나반, 김건안 후보가 다반을 부여받기로 합의하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합의를 제출했다.

후보들은 장기간 경선으로 인한 권리당원과 주민들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건안 후보는 “행정통합,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방선거는 주민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다시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진정성으로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안평환 후보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후보자들 간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유권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마음이 순조로운 합의를 이뤄냈다”며 “대통합의 시대정신을 북구 제1선거구에서 가장 먼저 실현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숙희 후보는 “정치의 미덕인 협의와 양보로 만들어 낸 합의인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대를 이어가겠다”며 “정치 선배인 두 후보의 아름다운 출선수범을 더불어민주당 원팀의 위대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

국힘 양혜령, 통합특별시의원 출마 선언

북구 제1선거구…“행정 견제·감시 총력”

양혜령 국민의힘 광주시당 지역발전특별위원장(사진)이 북구 제1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양혜령 위원장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독주지역에서 소수 정당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중대선거구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안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전남대 치대 졸업 후 치과병원을 열어 30년간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이어왔다.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국민의힘 중앙위 여성분과 부위원장, 광주시당 지역발전특별위 위원장, 민주평통 동구협의회장, 공정사회연구원 상임대표, 백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해왔다. 북구 제1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원에 도전하는 양 위원장은 10대공약으로 국립지화학연구원 유치, 동광주IC~광산C도로 확장 조기 완공, 무등산케이블카 설치

(석곡동 출발), 신안다리 침수와 가뭄 해결, 지하철공사 조기 완공, 공공도시관리과 공공유치원 확충, 자연과학고 이면도로 조기 완공 등을 제시했다. 양혜령 위원장은 “더 이상 광주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당선되는 도시가 되어서 안 된다”며 “민주당의 독점적 구도를 타파하고 정치와 행정을 견제·감시하며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등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